

하락장에 강력 배팅하는 서학개미… 채권 ETF도 ‘줍줍’

해외주식 Click

에탁결제원, 순매수 1위 종목에 SQQQ, 557억 가량 순매수
나스닥지수 떨어질때 3배 수익

테슬라 521억 사들여 매수 2위
초고위험 배팅에 손실 우려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하락장과 채권 상장 지수펀드(ETF)를 많이 사들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 증시의 불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행의 파산 위기가 겹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초고위험 배팅으로 인한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한국에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주(5월 1일~5월 8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프로셰어즈 울트

〈5월 1일~9일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현황〉

/자료=한국에탁결제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결제
1	PROSHARES ULTRAPRO SHORT QQQ ETF	4218달러
2	TESLA INC	3943달러
3	SPDR BLOOMBERG 1-3 MONTH T-BILL ETF SPLR 005544852 US78464A6800	3911달러
4	PROSHARES ULTRA BLOOMBERG NATURAL GAS ETF SPLR 007184947 US74347Y7067	1983달러
5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	1400달러
6	BMO MICROSECTORS US BIG BANKS INDEX 3X LEVERAGED ETN	1211달러
7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1106달러
8	ELI LILLY & CO	1061달러
9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9143달러
10	BMO MICROSECTORS US BIG OIL INDEX 3X LEVERAGED ETN	7934달러

라프로 숏 QQQ ETF(SQQQ)이다. 서학개미들은 SQQQ를 4218달러(약 557억) 가량 순매수했다.

해당 종목은 나스닥지수를 반대로 3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나스닥지수가 떨어질 때 3배 수익을 얻게 되며, 반대로 오를 경우 3배 손실을 입게 된다. 이

는 서학개미들이 미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SQQQ와 상반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는 2위의 매도량을 보였다. TQQQ는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를 추종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

시 동향에 대해 “미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음에도 개별 종목에 주목하며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을 시작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은행 파산 위기도 매매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증시에서는 중소·지역은행 주가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 등락폭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에서 유행하는 ‘하따(하한가따라잡기)’ 전략이 그대로 사용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레버리지 투자 선호 확대와 겹치면서 손실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학개미들이 2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는 테슬라로 3943달러(약 521억)를 사들였다. 이외 상위 10개 종목 중에는 ▲BIL(SPDR BLOOMBERG 1-3 MONTH T-BILL ETF) ▲PROSHARES ULTRABLOOMBERG NATURA

L GAS ETF(천연가스 2배 추종) ▲디렉시온 테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3X SHS ETF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ETF(TLT)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등 채권 ETF들이 포진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기 국채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 장기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3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선호가 높아 ‘한방’을 노리는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종료할 것이란 신호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채권투자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낮아진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매력, 또는 중장기적으로 자본 차익을 기대하는 개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1분기 TDF 운용 연금자산 10조 돌파

금투협, TDF 출시 7주년 성과
실적배당상품 규정 개정 영향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운용되는 연금 자산이 올해 1분기 기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TDF가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연금시장을 중심으로 처음 출시된 지 7년 만에 이 같은 성장을 달성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TDF로 운용되는 연금자산이 올해 1분기 10조 1000억원에 달했다.

문유성 금투협 연금부장은 “2020~2021년부터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중 TDF 점유율이 크게 늘었다”며 “코로나 19 시대가 되면서 투자 인구 확대와 투자 인식 전환도 있지만 연금 펀드가 실적 배당 상품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이 2018년 하반기 100%까지 답는 것으로 개정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상품으로 초기에 위험자산 비중이 높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협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 규모·운용성과 분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산 비중을 확대하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방식을 활용한다.

올해 1분기 기준 TDF의 누적 순자산은 11조원으로, 이 가운데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73.7%, 개인연금이 18.6%였다. 또 1분기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중 TDF가 차지하는 비중은 19.3%였다. 지난 2018년~2021년 기준 퇴직연금 내 TDF 적립금은 매년 2배 이상 증가해 실적배당상품으로의 머니무브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19개사가 TDF 상품을 출시해 운

용하고 있으며 성장세에 힘입어 매년 2~4개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해 상품 다양화,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빈티지(은퇴시점)별로는 1분기 기준 TDF 2025와 TDF 2030의 누적 순자산이 전체 빈티지 TDF의 각각 22.2%, 20.4%를 차지했다. TDF 2045는 16.8%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쌍봉형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은퇴시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빈티지를 선택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운용성과 측면에서 TDF는 매년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채권형 펀드 사이의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기에는 글로벌 주요지수와 동조화되어 수익을 시현하고, 증시 하락기에는 손실을 일부 방어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석진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장기·적립식이라는 연금투자의 속성에 TDF가 잘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연금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라임·CFD사태’ 논란 모두 피해 ‘리스크 관리 제왕’ 미래에셋증권

CFD 도입에 신중했던 것 주효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증권가를 뒤흔든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의 논란 밖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업계가 앞다퉈 도입했던 CFD 서비스 도입에 남달리 신중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CFD 사업을 검토했으나 거래를 당장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시경제 변동성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데 이어 지난해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비율도 업계 최저수준인 30%대로 유지해 리스크 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

줬다. 이번 CFD사태에서도 무풍지대의 안정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해외사업 등에서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에서 2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1조 4000억원 증가해 증가금액, 증가율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작년말까지 적립금 19조5000억원으로 전체업권 중 7위를 기록했던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합동으로 미래에셋증권 현장을 방문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가입과 디폴트옵션 지정을 직접 시연해 보고, 미래에셋증권 연금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연금설계 서비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관희 기자

GS건설 “검단 공사현장 붕괴사고 사과”

GS건설이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GS건설은 9일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즉시 사고조사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며 건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공기 단축은 없고, 원가 감소도 최대 1000만원 인팍으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지만, 그간 시공사로써 안전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자부해 온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과오”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점검이 실시되는 3개월간 최고경영자(CEO)인 임병용 부회장과 최고안전책임자(CSO)인 우무현 사장이 직접 조사 대상 83개 현장을 포함해 전국 110개 모든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전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 가능성 커지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59.5%↑
부동산 강제경매 느는데 낙찰률 하락

최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강통주책’이 늘면서 부동산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낙찰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

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는 8452건으로, 지난 1월(6622건) 대비 27.6%(1830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5299건)과 비교해 보면 59.5%(3153건)나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경우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074건으로, 3개월 만에 2.4%(120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

어나자,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3199억원으로 지난 2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21건에서 1385건으로 23.6%(264건) 증가했다. 임의·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매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낙찰률은 여전히 30%대 머물고 있어 세입자들이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환 기자